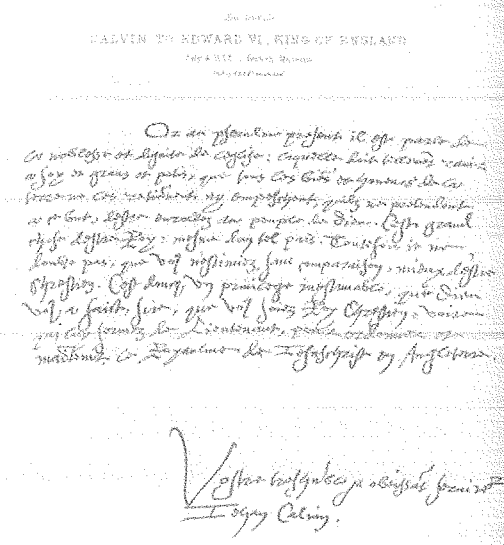
을 나누어야 한다. 이해와 동정으로 열린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지막 대적인 사망이 승리의 부활 생명에게 삼킨바 됨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전 15:54; 살전 5:16-18).

에스겔 16:6에 의하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전쟁터와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제안해 본다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우울해하며 외로워하는 자, 특히 성도 가운데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할 사람을 훈련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확인하자: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전 15:55, 57. 바른 성경 역).







한자성어와 함께 고찰하는 개혁주의 핵심교리 1

# 근고지영(根固枝榮)과 개혁주의 성화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마 7:26) 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정반대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무엇일까? '근고지영(根固枝榮)'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그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또한 시편에 나타난 다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든다: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시 92:12-14).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즉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앞에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21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이는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죄로 가득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며 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변화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엡 5:24). 우리는 이를 흔히 '중생'(regen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개혁주의 성화론, 특히 칼빈이 말하는 성화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칼빈** 성화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가 옛 사람을 죽이고 (*mortificatio*) 새 사람을 살리는 것(*vivificatio*)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성화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여기에 바로 영예로운 삶,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 29:23)고 기록하고 있다. 즉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분의 뜻이 담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시 1편).

성화의 결과로 나타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근고지영'이라는 한자성어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근고지영'은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화는 중생에서 시작하여 더욱 완전한 삶을 그 목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된다.

'근고지영'은 열매를 통하여 나무가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지닌 반면에 성화의 열매는 성화의 대상인 신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화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대상 29:12-13).

**성도의** 삶이 성화의 삶이어야 하는 이유는 명예와 부를 추구하여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성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개혁주의 전통의 대표적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1649)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성화된 신자의 삶은 자신이 풍성함을 누리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인본주의적 삶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대주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Soli Deo gloria*)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이 항상 고백되고 널리 전해져야 할 것이다.